



통신서비스업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1. 주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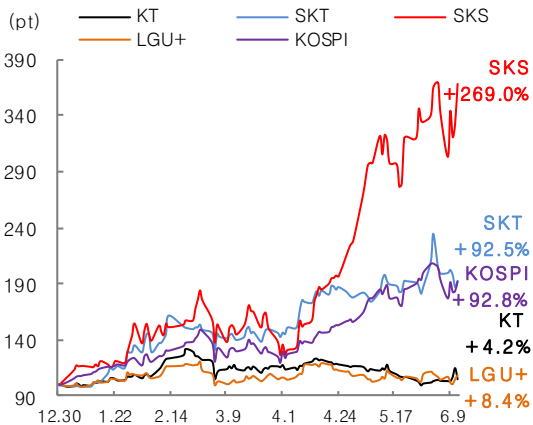
기업	25/12/30	06/05	06/12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12MF DPS	배당수익률	주간 그래프
SKT (017670)	53,500	106,400	103,000	▲49,500	▲92.5%	▼3,400	▼3.2%	3,320	3.2	
SK스퀘어 (402340)	368,000	1,258,000	1,358,000	▲990,000	▲269.0%	▲100,000	▲7.9%			
KT (030200)	52,600	54,000	54,800	▲2,200	▲4.2%	▲800	▲1.5%	2,500	4.6	
LGU+ (032640)	14,720	15,320	15,950	▲1,230	▲8.4%	▲630	▲4.1%	700	4.4	
KOSPI	4,214.2	8,160.6	8,123.6	▲3,909.5	▲92.8%	▼37.0	▼0.5%			

주가 Comment

- 주가 코멘트: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AI에 대한 가능성은 오픈
- 통신 주간 -0.5%, KOSPI -0.5%. YTD 통신 +37.1%, 지수 +92.8%. 5/29부터 약 일주일간 진행된 젠스 황 효과는 마무리. SKT와 LGU+는 방한 이전 수준으로 복귀, 동기간 KT만 꾸준히 상승
- 아직 AI 산업과 관련한 통신의 매출이 크지 않아서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시장은 통신이 AI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판단
- 특히,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협업하면서 제시한 DC 매출은 통신사들의 코로케이션, 서버 호스팅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통신사들의 AI DC 매출도 기존 DC 매출 대비 상승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TSR이 6%로 가장 높고, 현재 자사주 2.5천억 취득이 진행 중인 KT가 현시점에서는 가장 투자에 적합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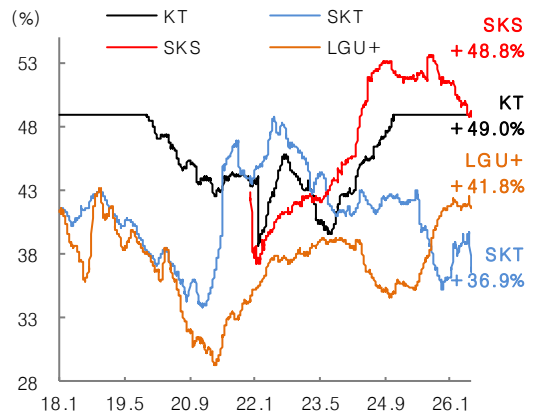
2. 주가 차트

26년 YTD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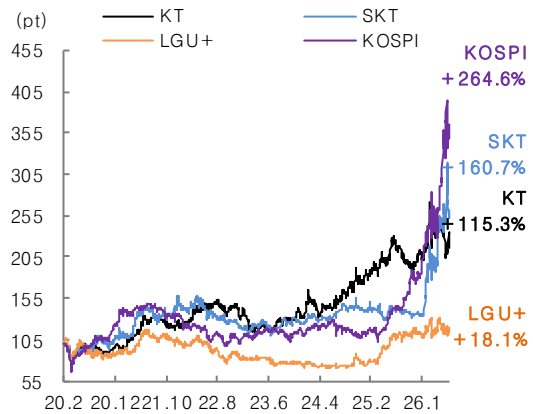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인 지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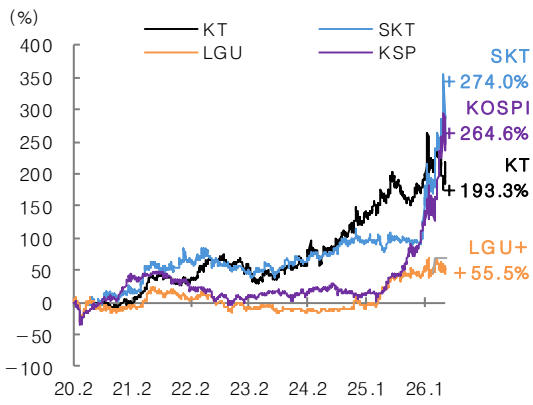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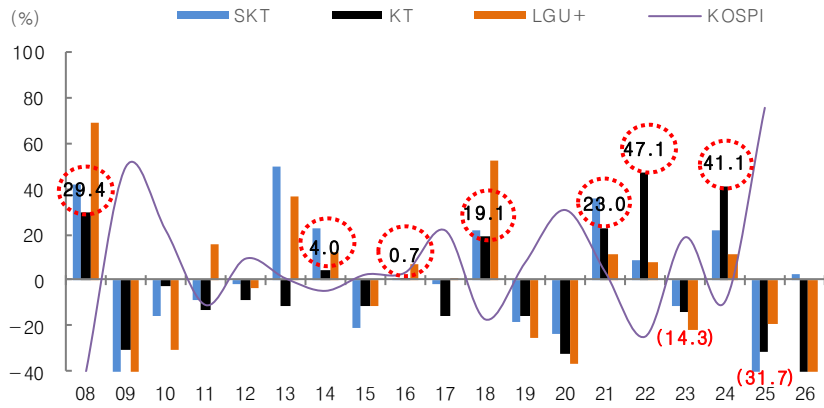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배당 재투자 수익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YTD 주가 상승률(KOSPI 대비 상대 수익률).
 SKT +92.5%(-0.1%), KT +4.2%(-46.0%), LGU+ +8.4%(-43.8%)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6년초부터 SKT의 급등으로 26.2월 기준 통신업은 KOSPI 대비 아웃퍼폼

	SKT	KT	LGU+	KOSPI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19	(11.7)	(9.4)	(19.5)	7.7	(18.0)	(15.9)	(25.3)
20	0.0	(11.1)	(17.3)	30.8	(23.5)	(32.0)	(36.7)
21	41.0	27.5	15.7	3.6	36.1	23.0	11.7
22	(18.1)	10.5	(18.8)	(24.9)	9.0	47.1	8.2
23	5.7	1.8	(7.4)	18.7	(11.0)	(14.3)	(22.0)
24	10.2	27.5	1.0	(9.6)	21.9	41.1	11.7
25	(3.1)	20.0	42.5	75.6	(44.8)	(31.7)	(18.9)
26	92.5	4.2	8.4	92.8	(0.1)	(46.0)	(43.8)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파란색 음영은 통신3사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주황색 음영은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이 (+)이면서 가장 높은 기업

3. 주간 코멘트

SKT 엔트로픽 추가 투자, SKT- NVDA 풀스택 AI 협력, ETRI 6G AI-RAN, LGU+ 파주 AIDC 청사진, 폐통신장비 자원순환

<p>SKT SKT 엔트로픽 추가 투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KT가 엔트로픽 추가 투자, 규모는 미공개. 단기 차익보다 전략 협력 유지 중심 판단. 소기 투자자 지위를 활용한 후속 투자 참여와 장기 파트너십 강화 기조 2. 엔트로픽의 최근 시리즈H 펀딩 라운드 기업가치는 약 970bn USD.,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 내 핵심 사업자 위상 부각 3. SKT는 재무 수익보다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사업 시너지 확보 강조. AI 인프라와 데이터 사업 확대 과정에서 엔트로픽 기술 협력 필요성 부각 4. IPO 이후 지분 매각보다 지속 보유 가능성 언급, 협력 관계 연속성 확보 우선순위 관점 제시. 단기 회수 전략보다 공동 사업 기회와 기술 연계 효과 중심 접근 5. 엔트로픽 역시 자체 컴퓨팅 자원 확보 필요성 확대 국면, 양사 간 인프라 협력 논의 여지 확대. 주주 관계 기반 우호적 협력 환경과 기술 연계 가능성 확대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조원으로 추정되는 지분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제 막 태동단계인 AI 산업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엔트로픽과 협업 모델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더 긍정적인 포인트

<p>SKT SKT- NVDA 풀스택 AI 협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KT와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전 영역 협력 확대 합의. 반도체 중심 협력에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AI 운영 체계까지 범위 확장 2. 양사는 엔비디아 DSX 플랫폼 기반 풀스택 AI 클라우드 구축 전략 추진. GPU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데이터센터 운영을 통합하는 AI 인프라 모델 구상 3. 핵심사업은 AI 팩토리 구축 계획, 전력과 데이터를 활용해 AI 토큰 생산 구조 지향. 기존 데이터센터를 넘어 AI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된 차세대 인프라 개념 4. 첫 AI 팩토리는 2027년 한국 가동 목표 설정, 이후 기가와트급 규모로 확대 예정.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전역 AI 인프라 네트워크 확장 전략 전개 5. SKT는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최신 GPU 확보 기반 마련. 블랙웰과 베라 루빈 플랫폼 활용으로 AI 학습·추론 서비스 경쟁력 강화 6. 양사는 GPU와 메모리, 에너지 효율을 포함한 차세대 AI 아키텍처 공동 연구 추진. SK하이닉스 HBM 역량과 엔비디아 AI 플랫폼 결합을 통한 아시아 AI 생태계 주도권 확보 구상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T는 Full Stack AI를 지향하고 그 중에서도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 데이터센터는 SKT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기존 데이터센터 사업은 코로케이션, 서버호스팅 위주 였다면, 엔비디아와의 협업 이후 데이터센터는 GPUaaS 등 보다 고부가가치 사업일 것으로 전망 ■ 이미 두 자칫 수 성장을 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매출의 성장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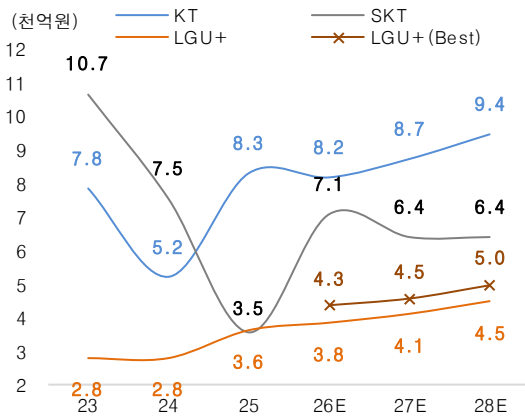
<p>산업 ETRI 6G AI-RAN 연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TRI가 6G AI-네이티브 네트워크 핵심축인 AI-RAN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에 착수하며 글로벌 주도권 경쟁 참여. 과기정통부와 IITP 지정 전문연구소를 통해 원천 기술 확보 및 검증체계 구축 2. AI-RAN은 무선접속망 설계와 운영 전반에 AI를 내재화해 자원 최적화와 장애 예측, 학습·추론 기능까지 수행하는 차세대 구조 지향점. 기존 통신망 운영 체계에서 AI 중심 자율 네트워크 체계로의 전환 흐름 3. 사업은 ETRI를 중심으로 SKT·KT·LGU+와 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 기업,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이 참여한 구조. 국내 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 생태계 구축과 기술 사업화 연계 전략 4. 글로벌 협력 축으로 미국 노스이스턴대학교와 AI-RAN 얼라이언스, 3GPP, O-RAN 얼라이언스 등 국제 표준 조직 참여 구도. 국제 기술협력 확대와 글로벌 표준 반영을 겨냥한 공동 대응 체계 5. 연구진은 기지국 소프트웨어 기반 가상 네트워크 플랫폼과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해 AI 모델 성능 검증 추진 계획. 3GPP 릴리스 19-21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과 매시브 MIMO 반영 검증 환경 구축 목표 6. 연구 기간은 올해 4월부터 '30년 12월. 총 470억원 규모 예산 투입 계획. AI 학습과 검증, 재학습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연구체계 확보와 글로벌 AI-네이티브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목표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음. AI-RAN 도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트래픽 관리 가능 ■ 아직 AI-RAN은 개념적으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관 합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p>LGU+ LGU+ 파주 AIDC 청사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LGU+가 파주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AI 인프라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며 대규모 시장 공략 본격화. 생성형 AI 확산과 GPU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인프라 확보 전략 2. 파주 AIDC는 총 5개 동, 연면적 약 15만2000㎡ 규모로 조성되는 초대형 시설. 27년 50MW 규모 1동 준공 목표. 전체 전력 확보 규모는 200MW 수준 3. 설계 단계부터 엔비디아 차세대 GPU 아키텍처 베라 루빈 서버 수용 환경 반영. 고밀도 연산 환경에 필요한 전력과 냉각, 네트워크 구조를 사전 고려한 AI 전용 데이터센터 지향 4. 구축 경쟁력 확보를 위해 PMDC 방식 도입과 공랭·액체냉각 결합 하이브리드 구조 채택. LG전자 협력 D2C 액체냉각 기술 적용으로 기존 공랭 대비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 검증 5.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LS일렉트릭 등이 참여하는 원 LG 기반 통합 생태계 구축 전략. 냉각장비와 UPS 배터리, 전력 시스템, AI 기반 DCIM 운영 플랫폼까지 그룹 역량 결집 6. LGU+는 30년까지 누적 AI 데이터센터 사업 수주 5조원과 600MW 인프라 확보 목표 제시. 다만 후속 확장 로드맵과 PUE 개선 효과, 종소유비용 절감 수치 등 구체적 실행 지표는 향후 과제 영역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데이터센터 사업은 코로케이션, 서버호스팅 위주. 파주를 포함해 향후 구축 예정인 AI DC의 경우 GPUaaS 등 보다 고부가가치 사업일 것으로 전망

<p>산업 폐통신장비 자원순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통신 3사 및 유관기관과 함께 폐통신장비 핵심광물 순환이용 체계 구축. 자원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추진을 동시에 겨냥한 민관 협력 사업 2. 23년 기준 폐기된 기지국과 중계기, 서버 등 폐통신장비 규모는 약 1.4만톤 수준. 해당 장비에는 구리와 네오디뮴, 팔라듐, 코발트 등 약 1,800억원 규모 핵심광물 포함 3. 폐통신장비는 일반 폐기물보다 핵심광물 함량이 높아 경제적 가치가 큰 자원으로 평가. 다만 국제 시세와 유통 구조 영향으로 국내 회수와 재활용 체계는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 4. 이번 협약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기후부, SKT·KT·LGU+, KCA,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시범사업 추진 계획. 폐장비 발생 현황과 처리 과정, 재활용 제품 유통 흐름 조사 중심 추진 5. 내년부터는 핵심광물 분리 자동화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 지원 확대 예정. 해체·선별시설 구축 지원과 함께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 병행 6. AI 인프라와 통신망 확대에 따라 통신장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광물 확보 중요성 확대. 폐통신장비를 국내 자원 공급원으로 활용해 공급망 안정성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 확보 목표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은 주기적으로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폐통신장비를 재활용하는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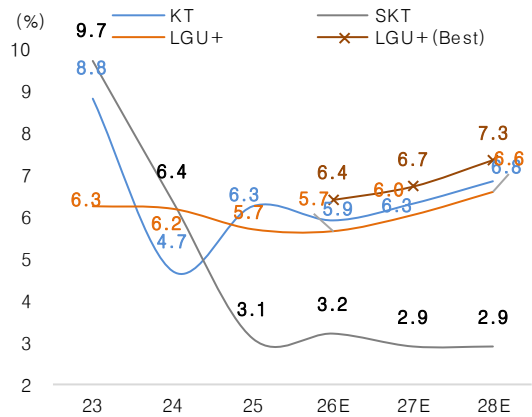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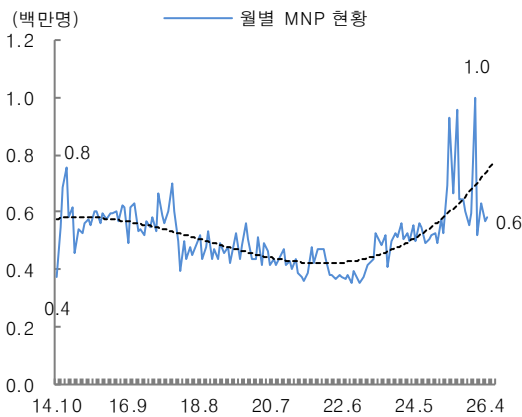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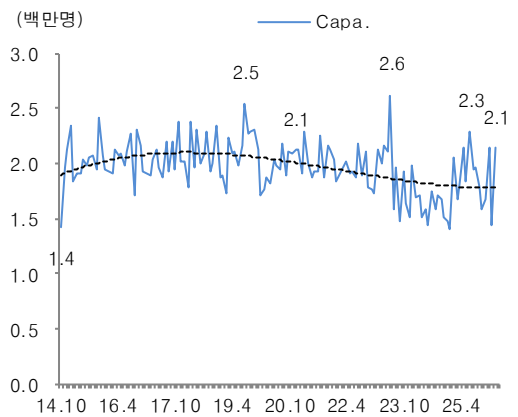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번호이동(26.5월) 584천명, +18천명 mom, 25년 평균 656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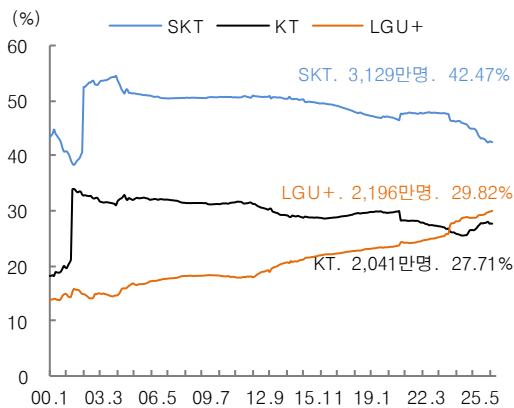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apa.(신규 + 변이 + 기변) 214만명(26.3월). 24년 평균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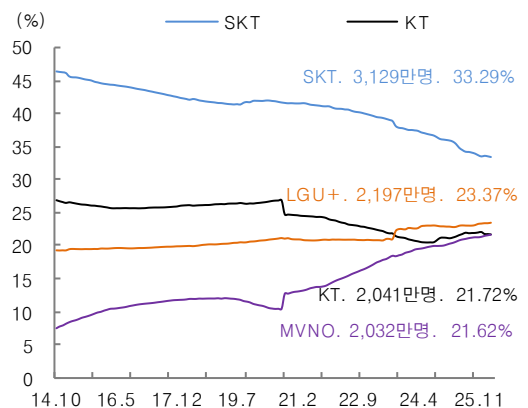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3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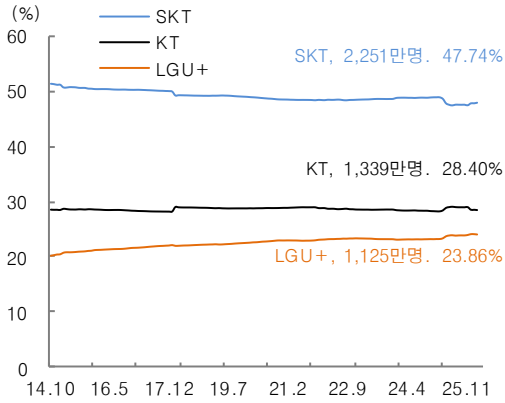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3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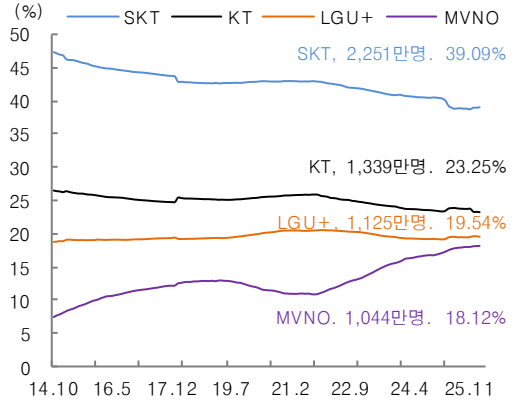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3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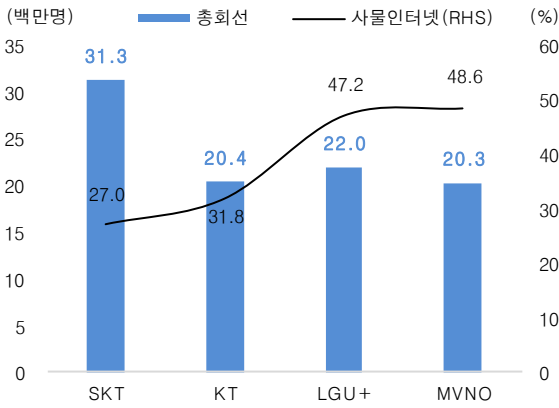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3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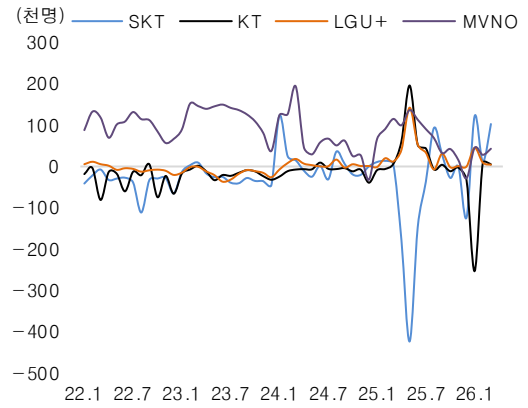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vs. 사물인터넷 비중(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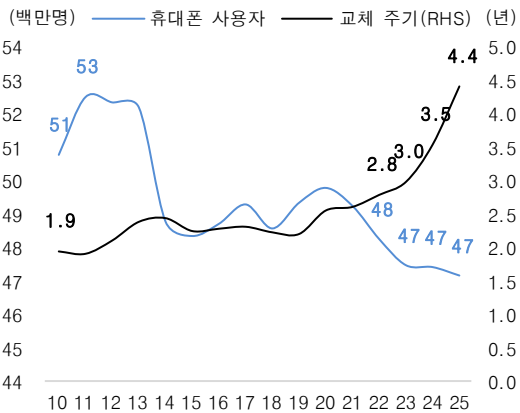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순증(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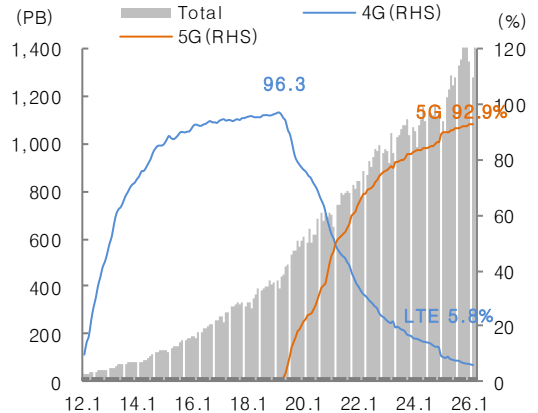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교체주기 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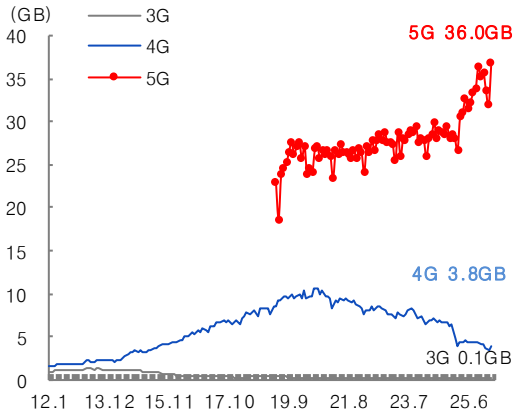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비중 92.9%(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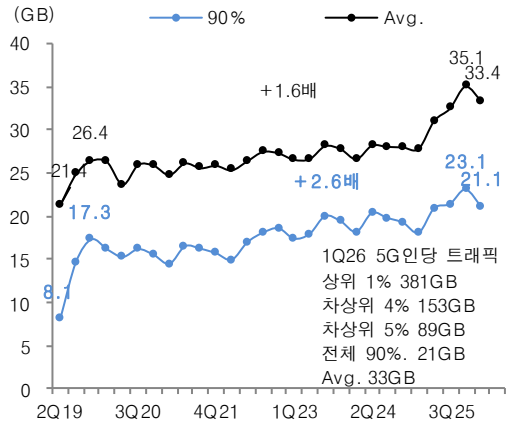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36.0GB(26.3월), +4.0GB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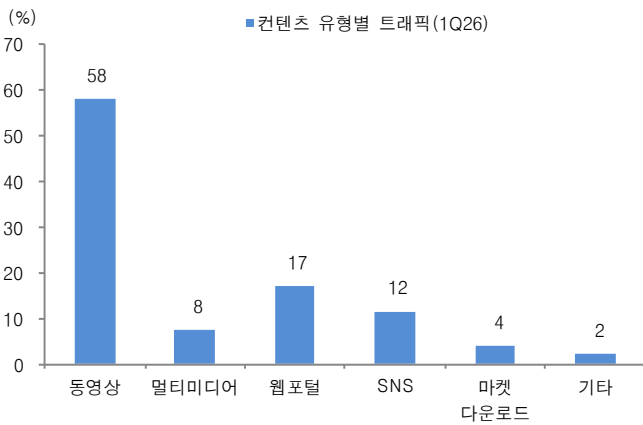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추이(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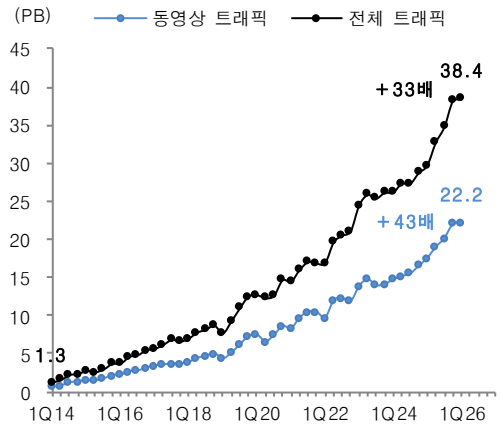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콘텐츠 유형별 트래픽(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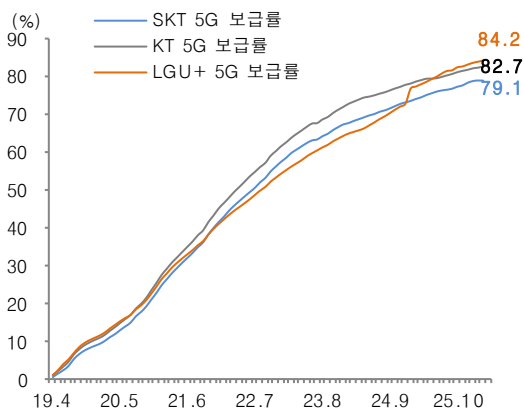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동영상 트래픽 vs. 전체 트래픽(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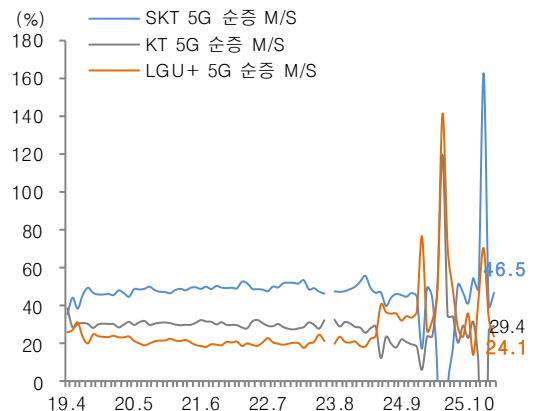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대비 5G 보급률 81.3%(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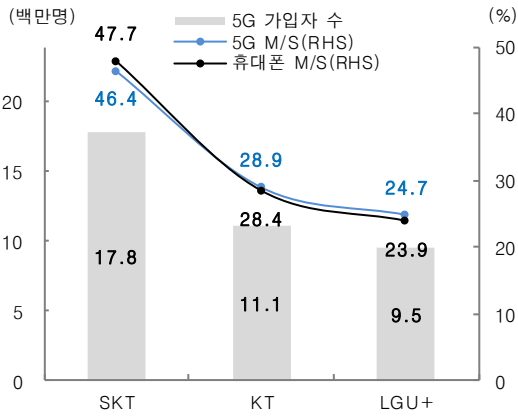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순증 점유율(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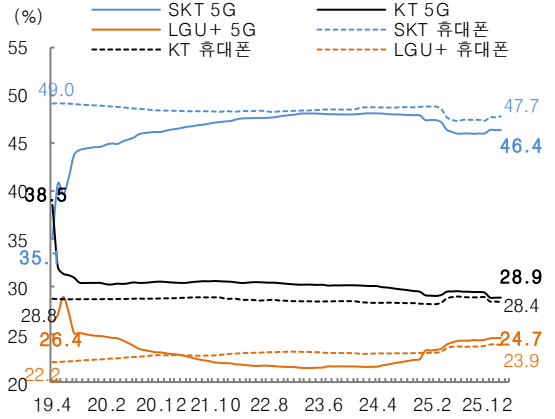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3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3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희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